

# 한, 민주·민노 빼고 국회 개원 추진

##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조건 협의 4일 국회의장 선출 강행할 수도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과 잇따라 개원문제에 대한 회동을 갖고 국회 조기 개원을 위한 발 걸음을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을 제외한 채 오는 4일 개원,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의 등원을 거세게 압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선진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건 5가지 모두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자유선진당과의 협상 전망을 밝게 했다.

자유선진당은 개원의 최소 조건으로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 내에서의 가족친화법 예방법 개정 ▲미국산 쇠고기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최고기 관련 긴급현안질의 ▲통상절차법 개정 ▲고유가 등 민생 현안 타결을 위한 여·야·정 대책기구 구성 등을 내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가족법은 국제 통상차별이나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면서 “또 개원 직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 직후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는 것도 들어줄 수 있고 통상절차법 제정도 우리가 야당일 때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으며 고유가 등 민생현안 타결을 위한 여·야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 달을 허비했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긴급현안 질의도 하고, 고유가·고물가 후속대책 관련 현안 타결을 위한 여·야·정 대책기구 구성 등을 내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가족법은 국제 통상차별이나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면서 “또 개원 직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끝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 소집시 FTA비준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회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친박연대 박종근 원내대표와 만나 오는 4일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등원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만이라도 뽑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의 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4일 오후 잠정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도 선출해야 하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그 전에 42차회에 걸쳐 논의했기 때문에 통일외교통상위가 아니라 국회 전원위원회로 가서 난상

## ■ 민주당 등원 시기 저울질

# “국회 가긴 가야 하는데...”

### “이번주는 안돼” “주 후반 등원” 의견 분분... 단계적 등원론도

등원 시점을 놓고 통합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어쨌든 등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 복귀 시점을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안돼”=원혜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다음 주 이후 등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등원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최고기 장관 고시를 강행하고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진압으로 나선 정부와 한나라당 태도를 보면서 바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확인하고 원내 구성 등에 대한 가시적인 양보를 이끌어낸 후 등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등원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떠나자 지도부가 내

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조성식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의원총회에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권한을 주자, 7·6 이후에 등원하자는 입장이 있었고 그 전에 등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주 내에 등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번 폭행하고 강경진압을 한 데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후반 등원”=조기 등원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가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등원 의견이 대세인 만큼 그 시기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차기 대표 후보인 정세균 의원이 현 지도부 체제 하에서 등원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주자들도 한결같이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어 새 지도부로 선출되자마자 등원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은 만큼 현 지도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계적 등원론”=국회법상 규정된 첫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이전에 개원에 응하되, 원구성 협상은 유보하는 단계적 등원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개원이 불발될 경우 국회 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 기간 의정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야당이 떠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 “무조건 수도권 규제 풀 계획은 없다”

### 이 대통령 충청북도 업무보고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는 지방발전이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는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방과 수도권에 균형발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만으로는 10년 안에 4만달러 소득을 이뤄낼 수 없다. 수도권에 더 집중이 되면 인건비와 땅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도권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방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마다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면 중앙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찍이 충북이 ‘경제특별도’를 내건 것은 아주 시의적절했다”면서 “경제특별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문화는 없느냐’, ‘다른 것은 없느냐’고 할지 몰라도 경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도청호보관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면 일자리도 생기고 서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문화와 역사를 꽃피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관련, “대

한민국은 원천기술로 과학인국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도시로 과학벨트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 총리 “검·경, 폭력시위 차단 최선 다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 “검찰, 경찰을 비롯한 유관부처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고 범죄사 회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합법적인 국민의 소리에는 겸허히 귀를 기울여겠지만 도로점거, 기물파괴, 경

찰폭행 등 불법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순수성을 찾기 어려워 만큼 목적이 변질되고 불법, 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경찰 집단폭행, 특정 언론사 폭격, 취재기자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분을 찾을

수 없으며 국민은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를 철저히 배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는 외국투자자들의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케 하고 국내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관철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과 강의!

# 꼭내영교육학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대특강

꼭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개강 7월 4일

전공국어 최병해 교수팀 개강 7월 5일

강좌명 및 반구성	개강	특징
국어교육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5일(토) 9주 완성 (정강)	국어교육학 기본 교재(상/중/하)로 진행 중. 고등국어/사/특/교과서로 진행
단반: 마운용 교수	7월 7일(일)	최종 마무리 subnote 작성
문학/국어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10일(수)	문학/국어학 기본 교재로 진행
단반: 최병해 교수	8월 1일(수)	최종 마무리 subnote 작성
문제풀이 기본반	7월 6일(일)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반으로 진행
오전	7월 7일(월)	강좌 구성
1차 선더링 시험 대비	7월 8일(화)	7월: 문학(4주)
오전	7월 9일(수)	8월: 국어교육학(3주)·국어학(2주)
2차 논술형 시험 대비	7월 10일(목)	선더링 시험 문제 유형 파악과 훈련 실시
오전	7월 11일(금)	논술형 시험 적응 훈련 실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고의 합격률만 자랑하는

## 임마선 유아교육과정

1차 대비 영역별 객관식 문제풀이반

개강 6월 18일, 21일, 22일 강의시간: 09:30 - 17:30

[주차별 강의 내용] 현재 상황별 접수중

1주. 유아개론, 유아교사상, 놀이	7주. 언어 발달과 언어 생활
2주. 교육과정론과 총론	8주. 인지 발달과 과학 교육
3주. 신체성장과 건강 생활	9주. 수학 교육
4주. 사회성발달 사회 생활 I	10주. 부모 교육, 교사론
5주. 사회 생활 II	11주. 교육과정 운영 I
6주. 예술의 발달과 표현 생활	12주. 교육과정 운영 II

※ 2차 논술형 주관식 문제풀이반 추후 개설예정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 할: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관공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직, 통역직, 건축직, 보건직

※ 보강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월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7월 1일 (주·아반모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총)회원 80만원

1년(총)회원 120만원

한학기(총)회원 170만원

www.mdgosl.co.kr ☎ 222-4560

제19회 공인중개사 10월 28일 시험대비!!

기본서 공인중개사 프린트 시험지

개강 7월 1일

#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가장 7월 1일 최종문제풀이 주택관리사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현재 접수중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요망

44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본원출신

www.lan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2층

합동점 ☎ 971-0002 (구)백야트 침단점 옆 경주은행 4층

원서접수: 2008.8.18 ~ 8.27 [원서접수대행]

새로운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주야 문제풀이특강

(첫진도 시작반)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람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참석자들추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충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성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세평빌딩 4층